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2020년 5월 12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447천 km <sup>2</sup> 	<b>인구</b> 34.0백만 명 (2019)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서방과의 협력 확대,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지속 
<b>GDP</b> 570.5억 달러 (2019) 	<b>1인당GDP</b> 1,729.6달러 (2019) 	<b>통화단위</b> Som 	<b>환율(U\$기준)</b> 8,837 (2019)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1.2조 m<sup>3</sup>), 원유(6억 배럴) 등 에너지 자원과 우라늄, 금 등의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 금, 면화, 천연가스 등 자원·에너지 부문이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을 위주로 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이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경제자유화, 환율제도 개혁, 외환자유화 등 경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WTO 가입 추진 등 대외개방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러시아 주도의 EAEU 옵저버 가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과의 경제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 29 수교 (북한과는 1992. 2. 7)

**주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8), 세관협력협정('99), 형사사범공조조약('04), 사회보장협정('06), 외교관 여권사증면제협정('09), 근로활동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이상 '12), 관광협력협정('13)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1,180,445	2,117,451	2,338,438	자동차 부품, 원동기, 합성수지
수입	18,117	21,920	19,708	면사, 순면직물, 펄프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389건, 7억 5,532만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7.4	6.1	4.5	5.1	5.6
소비자물가상승률	8.5	8.8	13.9	17.5	14.5
재정수지/GDP	0.1	0.0	0.1	-0.2	-1.3

자료: IMF, EIU

### 2019년 투자와 민간소비 증대에 힘입어 5.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내·외국인 투자 및 민간소비 증대에 힘입어 2018년 5.1%에 이어 2019년 5.6%의 성장을 기록함.
  - 2018~19년 에너지, 건설, 교통 인프라 등의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2019년 정부 부문 투자는 20%, 비정부 부문 투자는 39.8% 각각 증가하였음.
  - UNCTAD 자료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16년 16억 6,300만 달러, 2019년에는 22억 8,600만 달러로 급증하였음. 이는 미르지요예프 행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결과로 평가됨.
  - 산업 부문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건설업이 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광공업이 6.6%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5.1%, 농업은 2.5% 성장에 그침.
  - 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중은 2017년 30.5%에서 2018년 40.2%, 2019년 41.5%로 크게 상승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 차원의 경기침체에 따라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8%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2020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 1.8%로 크게 하락하고 2021년에는 다시 7.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IMF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카자흐스탄 -2.5%, 키르기즈 -4.0%, 타지키스탄 1.0%, 투르크메니스탄 1.8% 등으로 전망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운송 및 관광 기업, 기타 서비스 부문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일련의 대통령령을 통해 법인의 대출 상환 연기 및 금융지원 확대, 항공사 및 호텔 등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감세 및 세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내경제

##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전력요금 상승으로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전력요금 상승은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숨화 환율은 환율제도 개혁 이전인 2016년의 달러당 2,965숨에서 환율 단일화와 변동환율제가 도입된 2017년에는 달러당 5,114숨으로 상승하였음. 이후에도 연평균 달러당 숨화 환율은 2018년 8,069숨, 2019년 8,837숨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전력생산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생산원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력요금을 2019년 8월에 인상한 것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의 또다른 주요 원인이 되었음.
- 환율 및 전력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8.8%에서 2017년 13.9%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17.5% 및 14.5%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은 15%의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응하고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17년 6월 9%에서 14%로 급격히 인상하였으며, 2018년 9월 16%로 추가 인상하였음. 다만, 2020년 4월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5%로 인하하였음.
- 이처럼 중앙은행이 환율제도 개혁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안정을 위해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정부는 소비재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2021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0% 이하로 낮추고 2023년에는 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 20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정부투자 증가와 부가가치세 인하 등의 요인으로 -1.3%를 기록, 전년(-0.2%) 대비 증가하였음.
- 최근의 재정수지 적자 원인은 인프라 건설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2019년 10월 이후 부가가치세율 인하(20% → 10%)로 세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입 감소와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에는 GDP 대비 -2.7~-4.7%의 재정수지 적자를 전망하고 있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상수지	468	292	1,477	-3,594	-3,935
경상수지/GDP	0.6	0.4	2.6	-7.1	-6.9
상품수지	-797	-2,392	-2,216	-6,867	-6,596
상품수출	9,997	8,645	10,162	11,386	14,638
상품수입	10,794	11,037	12,377	18,252	21,233
외환보유액	13,297	13,815	13,664	12,071	12,475
총외채	14,802	15,801	16,866	17,630	20,622
총외채잔액/GDP	18.2	19.4	29.1	34.9	36.2
D.S.R.	4.1	10.6	12.6	15.9	11.5

자료: IMF, EIU

###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상품수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소비 증가에 따른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전체 상품수입액은 2017년 123.8억 달러에서 2018년 182.5억 달러, 2019년 212.3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수입품목 중 기계·설비류가 2018년 43%에 이어 2019년에도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대규모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운송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서비스 수입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도 지속됨.

## 외채상환능력

### 안정적 수준의 외채 관련 지표 유지

- 2019년 총외채규모는 정부의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자금 도입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외채 관련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36.2%로 2018년의 34.9%에서 다소 상승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도 각각 99.7%와 11.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 2019년 외환보유액은 124.8억 달러로 2018년과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으로 중앙은행은 안정적 대외자산의 확보를 위해 금의 보유 규모를 2018년 1월 140.3억 달러에서 2019년 1월 146.4억 달러, 2020년 1월 163.3억 달러로 늘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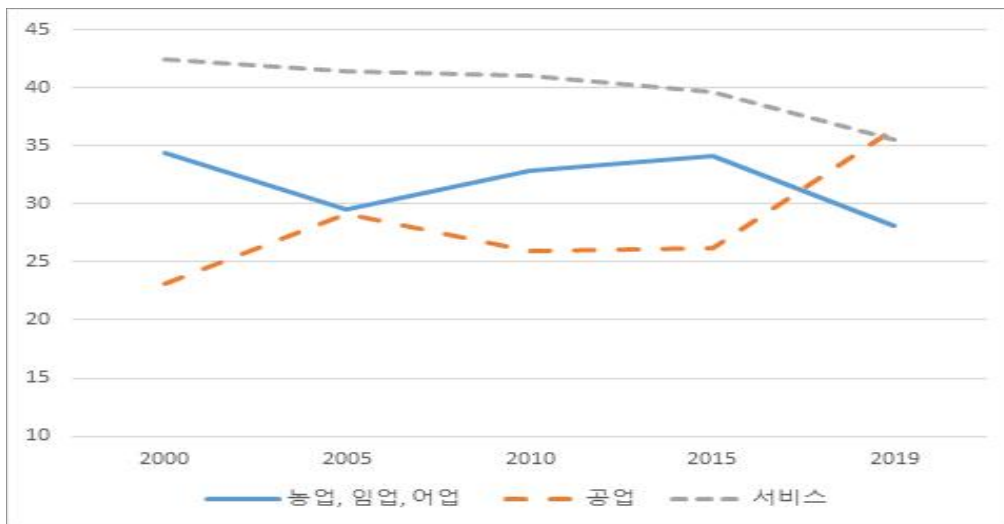
## 구조적취약성

### 제조업의 미발달과 국내 고용 창출 부진

- 에너지 및 농업 부문이 전체 산업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부문의 미발달로 다수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제조업 생산 중 1차금속 생산의 비중이 22.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식료품 생산이 13.0%를 기록하고 있음.
- 수출에서는 자원·에너지 부문이 높은 비중을 기록하여 금이 27.5%, 가스 등 에너지 제품이 1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과 식료품이 각각 9.1%, 8.5%로 높은 비중을 점유함.
- 수입품목에서는 기계 및 설비제품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43.8%를 점유하여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GDP에서 산업별 생산 비중

단위: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이처럼 취약한 제조업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내 제조업 발전을 위한 수입대체산업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2015년 이후 식품, 광물, 화학, 섬유, 건설자재, 금속, 기계 및 설비 등 7개 분야에 대해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물품의 관세율 인하 등 세제혜택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국내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에 따라 해외 취업 노동자 수가 2018년 기준으로 약 260만 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러시아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의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하고 있음.

## 구조적취약성

### 은행 부문의 문제점 지속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 내의 전체 30개 상업은행 중 13개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은행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2020년 1월 기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13개 은행은 전체 은행 자산의 84.4%, 대출의 88.2%, 예금의 72.2%, 자본의 86.7%를 점유하고 있음. 이는 2018년의 수치(전체 은행 자산의 81.9%, 대출의 88.4%, 예금의 65.9%, 자본의 80.6%)보다도 증가한 수준임. 아울러 상위 3대, 5대 국영은행의 높은 시장점유율도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특징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은 주요 국영기업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기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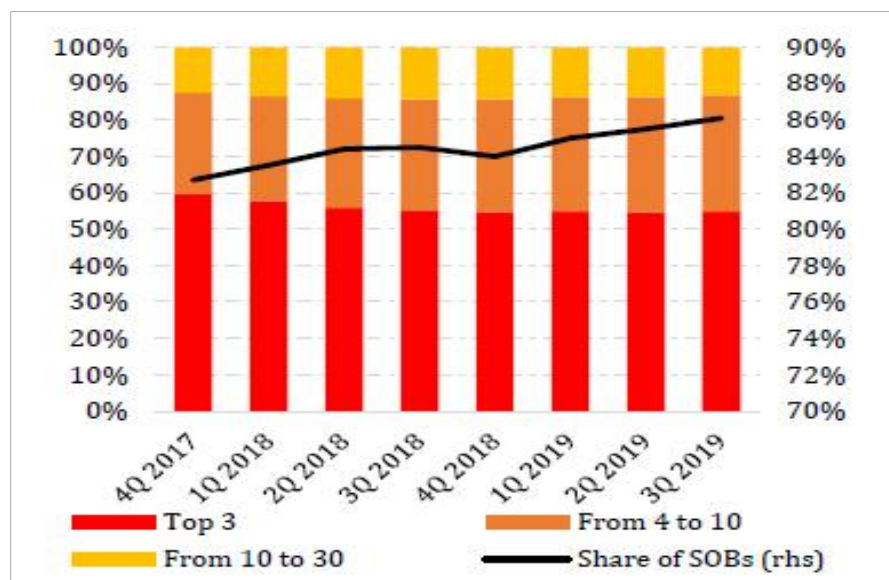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은행권의 지배구조 및 시장집중도

(단위: %)

	2014	2016	2018
3대 은행의 점유율	50.6	49.7	59.9
5대 은행의 점유율	63.7	62.9	71.8
국영은행	41.2	41.4	48.8
정부 지분보유 은행	35.5	33.7	33.2
외국계 은행	8.7	9.9	7.7

자료: ADB. August 2018. Financial inclusion, regulation, and literacy in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은행권의 자산 집중도 및 국영은행의 자산 비중



자료: Uzbekistan. Industry Research-Banks. 1 November 2019. <https://raexper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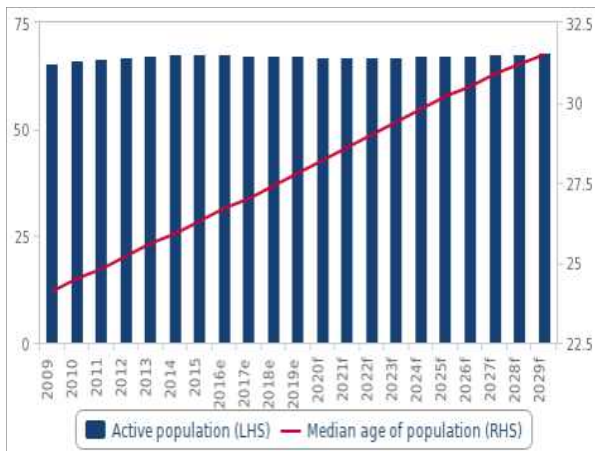


## 성장잠재력

###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 보유와 높은 인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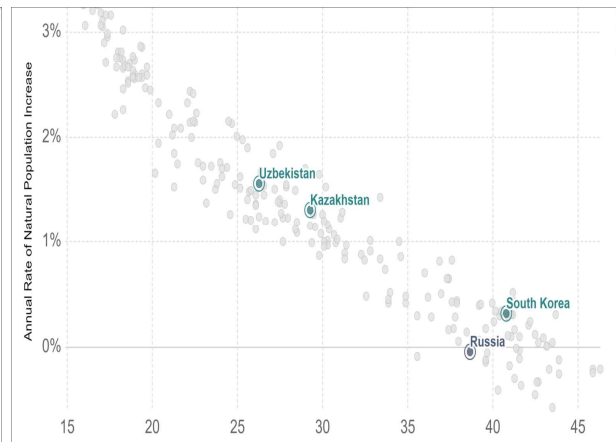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인구증가율에 힘입어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20년 4월 기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409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4년의 3,050만 명과 비교해 약 350만이 증가한 것임. 2014년 이후 최근 5년 평균 인구증가율은 1.6%로 세계 평균인 1.1%를 상회하고 있음.
- 또한 인구의 평균 연령이 28.8세로, 젊은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은 향후 경제성장 지속을 뒷받침하는 잠재력의 근원이 될 것으로 평가됨.

우즈베키스탄 경제활동 인가와 평균 연령 (2009~29년)



자료: UN, Fitch Solutions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인구증가율 및 평균 연령(2015년)



자료: UN (가로축: 평균연령, 세로축: 인구증가율)

### 천연가스, 원유, 우라늄 등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 2018년 기준 천연가스 1.2조 m<sup>3</sup>, 원유 6억 배럴 등의 에너지 자원과 금 및 우라늄 등을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들의 생산 및 가공, 수출이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 천연가스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중앙아시아 가스관을 통해 2012년부터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출망을 구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가스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
- 천연가스는 2018년의 경우 중국으로 63억 m<sup>3</sup>, 러시아로 53억 m<sup>3</sup>, 카자흐스탄으로 24억 m<sup>3</sup> 등 140억 m<sup>3</sup>를 수출하였으며, 2019년에는 중국으로 80억 m<sup>3</sup>, 러시아로 45억 m<sup>3</sup>, 카자흐스탄으로 25억 m<sup>3</sup> 등 150억 m<sup>3</sup>를 수출하였음.



## 성장잠재력

## 전자상거래 등 IT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

- 2016~18년 중 전자상거래 시장이 연평균 50.5%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IT 관련 서비스 산업이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상거래 잠재 시장규모는 약 1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체 인구 가운데 젊은 연령층의 높은 비중과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에 따라 당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우즈베키스탄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3년 26.8%에서 2017년 52.3%로 약 2배 증가하였음.

## 풍부한 면화 생산을 기반으로 한 섬유산업 발전 유망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조업 부문 중 주요 육성대상인 섬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2020~24년 섬유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임.
-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섬유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해당 기간 동안 섬유 부문의 생산량을 4.6배 증대시키고 2025년에는 섬유수출액 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 생산기술원과의 협력으로 2019년 타슈켄트에 '한-우즈베크 섬유 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섬유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정책성과

## 미르지요예프 행정부의 경제개혁 지속: 은행 부문 개혁, 농업 및 관광 발전

-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현재 국내 경제개혁과 대외 경제개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2017년 9월 외환자유화 실시(변동환율제 도입, 외환거래의 단계적 자유화 추진), 2018년 6월 조세개혁(소득세율을 12%로 단일화, 재산세율을 2%로 인하), 2019년 8월 추가 외환자유화 실시(일일 환율변동폭 제한 폐지, 일반인의 외환 매입 전면 허용), 2019년 9월 부가가치세율 인하(20%에서 15%로 인하) 등이 대표적인 경제개혁 정책임.
- 대외적으로는 2018년 2월 발표된 대외경제협력 확대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WTO 가입 추진을 재개 하였으며, IMF와의 협력을 통해 거시경제 지표 통계 투명성 개선과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컨설팅 등을 받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 추진은 202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후 초대 카리모프 행정부가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2016년 말 출범 이후 외환자유화 및 환율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의 국정연설에서 은행 부문의 개혁 등 기존의 경제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9개의 경제문제에 초점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거시경제 안정, 국영기업 및 은행 개혁, 수출산업 발전 등이 포함됨.

## 정책성과

###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2020년 9대 과제

1	거시경제 안정화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중점
2	투자 증대 : 206개의 생산 프로젝트에 230억 달러 투자
3	은행 부문 발전 : 경영 현대화, 전문 인력 양성
4	수출지향 산업 발전 : 국제표준에 맞는 제품 생산,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
5	에너지 부문 발전 : 현대적 인프라 구축
6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세계 50대 경제국 진입 목표, 세제개혁
7	농업 부문 발전 : 보조금 지급, 20억 달러 규모의 과일·야채 수출을 목표로 향후 5~7년 후의 농산물 생산량을 현재의 3~4배로 증대
8	관광 부문 발전 : 풍부한 문화 및 역사 유적지 개발, 현대적 관광 인프라 구축
9	지방 발전 : 도시화 과정에서의 생활환경 개선, 주요 발전 대상 도시로 안디잔, 부하라, 사마르칸드, 카르쉬, 나망간, 누쿠스 등 선정

자료: 2020년 1월 24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정연설

### 교육 및 의료 분야의 개혁 추진

- 대학 교육의 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8개의 대학 설립과 외국 대학 분교 유치 계획을 발표,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말 일본 대학의 분교 설립, 2020년 초 헝가리 및 터키 대학의 분교 설립이 합의된 바 있음.
- 의료 분야에서는 대규모 병원 건설,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과 터키 등으로부터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를 초대하여 관련 분야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3월 말 기준 22개의 경제특구 운영 중

- 2020년 3월 말 기준 22개의 산업, 제약, 농·어업, 관광 경제특구가 운영되고 있음.
- (산업 경제특구) 2008년 이후 나보이, 안그렌, 지작, 우르구트, 기쥐두반, 코칸드, 하라라습, 스리다리아, 나망간, 테르미즈, 누쿠스 등 11개 산업 경제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중 8개는 2017년 이후 지정되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최근 들어 산업 경제특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줌.
- (제약 경제특구) 2017년 5월 제약 분야를 대상으로 누쿠스, 조민, 보이순, 코손소이, 시르다리아, 부소 톨릭, 파르켄트 등 7개 경제특구가 지정되었으며, 2019년 1월 안디잔, 2020년 1월 타슈켄트 등이 추가로 지정되었음.
- (농·어업, 관광 경제특구) 2018년 부하라 농업 특구, 수산물 가공 특구, 차르박 관광 특구 등 농어업, 관광 등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를 지정한 바 있음.

## 정책성과

### 나보이, 지작, 사마르칸드 등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 추진 중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BD)의 자금 지원으로 나보이, 지작, 사마르칸드 등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나보이에 추진 중인 발전용량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아랍에미리트의 MASDAR Clean Energy사가 2019년 10월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작과 사마르칸드에도 각각 최대 발전용량 2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 2019년 9~10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8.3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3년 기한의 비자를 발급하고, 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한 외국인에게는 10년 기한의 영주권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함께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1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GDP의 55%, 세수의 46%를 차지하는 국영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영화 추진을 지시한 바 있음. 민영화 대상에는 에너지, 건설, 금융, 식품 등의 부문이 포함됨.
- 정부는 나보이와 사마르칸드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타슈켄트와 수르한드리야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타슈켄트-사마르칸드 간의 유료도로 건설 등의 프로젝트들을 PPP 방식으로 추진 중임.

### 외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농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9년 9월 ADB로부터 안디잔,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주의 농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1.97억 달러의 자금을 도입하고,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아랄해 복원사업을 위한 1억 달러의 자금을 도입하였음.
- 또한 IPak Yuli 은행은 2019년 9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네덜란드 개발은행으로부터 2,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으로부터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지원 목적으로 5억 달러의 자금을 도입한 바 있음.

### 국제기구 평가, 기업 환경 및 경제자유도 지수 개선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에서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여, 2020년 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69위를 기록하여 전년(76위)보다 7단계 상승하였음.
- 이는 5년 전인 2015년(평가대상 189개국 중 141위) 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창업, 전력공급, 계약분쟁 해결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헤리티지재단이 평가하는 2020년 세계 각국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는 평가대상 180개국 중 114위를 기록, 전년(140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정치동향

##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토대로 중앙집권체제 유지

- 2016년 12월의 선거에서 약 89%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의 뒤를 이어 취임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 내 정당은 대부분 친정부 성향임.
- 의회는 상원 100석, 하원 150석의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유민주당, 민족부흥당, 공정당 등 친정부 성향의 5개 정당이 활동하고 있음. 현재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야당은 존재하지 않음.
- 2019년 12월 의회 선거 결과 하원 150석의 분포는 자유민주당 43석, 민족부흥당 35석, 공정당 21석, 인민민주당 18석 등임. 동 선거의 감시를 위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독립국가연합(CI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참관단이 파견되었음.

## 정부는 2017~21년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항목으로 정치개혁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21년 국가발전전략의 5대 중점 목표 내용에 공공행정 및 국가 체제 개선, 법치주의 강화 등 정치개혁을 포함시켰음.
- 정치개혁에서는 법·제도 개선, 부패 척결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위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초에는 뇌물 및 직권남용의 혐의가 적용된 전 국가안전부 위원장과 검찰총장에게 각각 18년형 및 5년형이 선고된 바 있음.

## 국민의 정치적 자유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우즈베키스탄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이나 NGO의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5년 안디잔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반정부 단체의 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음.
- 2016년 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후 몇몇 정치적 수감자들이 석방된 사례가 있으나, 개인이나 단체의 공개적인 반정부 활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사회동향

### 정부의 임금인상 정책에 따라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 추세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평균 명목임금은 27.5%, 실질임금은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월평균 명목임금은 약 263.4달러이며,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542.9달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업이 429.1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수도인 타슈켄트가 381.4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나보이가 334.9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9년 우즈베키스탄 해외 이주노동자 송금액은 60억 달러로 GDP의 10% 수준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9년 해외에 취업한 우즈베키스탄인 노동자의 국내 송금액은 GDP의 10%를 상회하는 60억 달러임.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부터의 송금액이 많음.
- 해외취업 노동자의 취업국가별 국내 송금액은 러시아 46억 달러, 카자흐스탄 3.57억 달러 등 CIS 국가들로부터의 송금액이 50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 2.32억 달러, 터키 2.05억 달러, 한국 1.7억 달러 등임.
- 이처럼 GDP의 10%를 상회하는 높은 해외송금액은 우즈베키스탄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다수 국민들이 해외로 취업한 데 따른 결과임. 2018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경제활동인구의 20%에 달하는 260만 명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만 명은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음.

### 국내 제조업 부문의 취약성으로 높은 실업률 기록

- 2020년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의 실업률은 2018년 9.3%와 유사한 9.0%에 이르고 있음.
- 이처럼 높은 실업률은 국내 제조업 부문의 취약성에 기인한 일자리 부족의 결과로, 특히 16~30세의 청년 실업률은 1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카슈카다르, 사마르칸드, 페르가나 지역이 9.7%로 가장 높으며, 수도인 타슈켄트는 7.9%로 평균보다 다소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 경제·사회 각 분야의 법적, 제도적 토대 미비와 이로 인한 부패 문제 상존

- 미르지야예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법적,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우즈베키스탄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 보고서(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2019년 세계 180개국 중 153위를 기록하여 부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국제관계

###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추진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동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역내 정상회담도 주최하고 있음.
- 키르기즈와는 국경선 획정으로 국경 분쟁을 해결하고, 댐 건설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던 타지키스탄과는 양국 국경에 위치한 자라프산 강 유역에 공동으로 전력생산을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임. 카자흐스탄과는 2020년 2월 5억 달러 규모의 30개 협정을 체결하여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함.
-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제2회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2019년 11월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어 기후변화 공동 대응,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대아프가니스탄 협력 등이 논의되었음.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2월 우즈베키스탄 방문 당시 우즈베크-아프간 교역 증대를 위해 10억 달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추가로 10억 달러의 지원이 합의되는 등 미국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등과는 제조업 및 에너지 관련 합작기업 설립에 합의하는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12월 프랑스 원전기업 Orano사가 우즈베크 지질광물자원위원회와 나보이 지역의 우라늄 채굴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3월 독일 Volkswagen사와 우즈베크 국영 자동차 회사가 연 2만 대의 자동차 합작 생산에 합의하였음.

### 기존의 주요 협력국인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지속

-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등을 비롯한 경제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의회는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옵저버 가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러시아 Lukoil사와 Gazprom사가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개발 및 생산 부문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양국은 1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초대 카리모프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러시아 주도의 EAEU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현 정부에서는 EAEU에의 옵저버 가입을 논의하는 등 대러시아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에도 참여하여 중국이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 등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과의 투자 협력을 추진함.
-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2019년 우즈베키스탄 수출의 14.1%, 수입의 21.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의 50%가 중앙아시아 가스관(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중국 연결)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2019년 11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어 공동의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내의 경제특구 진출 등 제조업 부문의 투자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19년 9월 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억 5,230만 달러, 중장기 27억 9,310만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90만 달러(단기 20만 달러, 중장기 70만 달러)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20.01)	5등급 (2019.01)
Moody's	B1 (2020.03)	B1 (2019.02)
Fitch	BB- (2019.09)	BB- (2019.02)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3사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에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이후 현재까지 기존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3사는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거시경제현황과 향후 성장전망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인프라 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 및 외국인의 투자 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에너지 및 노동력 보유 등은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됨. 반면, 경제개혁 실시 이후의 환율 상승 및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등과 제조업 및 금융권의 취약성 등은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17년 이후 정부가 경제의 개혁 및 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부여, 세계 외환시장에서 성공적인 채권 발행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대외적으로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 중국 등과는 기존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서유럽 등 서방국가들과도 경제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외채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외채원리금 상환비율 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구소련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2019년 기준)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GDP 규모(억 달러)		570	16,379	1,703	471
1인당 GDP		1,730	11,163	9,139	4,689
경제 성장률 (%)		5.6	1.3	4.5	2.3
소비자물가상승률 (%)		14.5	4.5	5.2	2.6
재정수지/GDP(%)		-1.3	1.9	-0.6	8.4
경상수지/GDP(%)		-6.9	7.4	0.0	8.2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5.3	12.4	2.7	3.7
총외채잔액/총수출(%)		99.7	78.3	242.4	80.8
총외채잔액/GDP(%)		36.2	27.9	104.5	44.4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10.5	11.4	46.8	22.2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sup>주)</sup>	OECD	5	4	5	5
	S&P	BB-	BBB-	BBB-	BB+
	Moody's	B1	Baa3	Baa3	Ba2
	Fitch	BB-	BBB	BBB	BB+
	수은	D1	C1	C2	C2

주) 최신 등급 기재